

‘광주 미술시장 활성화’ 갤러리·아티스트 만나보자

17일까지 디어마이광주 진행 지역 10개 갤러리 참여 눈길 증전~청년 100여명 아티스트 체험 클래스·인증 이벤트 풍성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에 등록된 스토어와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광주문화재단은 광주갤러리연합과 협력해 14~17일 디어마이광주와 함께하는 예술주간, ‘디어마이워크’를 진행한다.

‘디어마이워크’는 광주 미술시장 활성화와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를 알리기 위해 디어마이광주에 등록된 10개 스토어와 100명의 예술인이 함께 마련한 특별 예술주간이다.

행사는 △민아트갤러리 △아크갤러리 △예술공간집 △플랫폼와사비아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예술이백그라운드 △다운갤러리 △갤러리S △김넷과 △맥시아트유니온에서 10개의 기획전시와 특별공연, 체험 등이 열린다.

서구 상무민주로에 있는 민아트갤러리에서 전시 ‘늘 그 자리에서’가 열린다. 23명 영아티스트가 참여하는 단체전으로 작가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동구 문화전당로 아크갤러리에서는 류초원 작가 개인전 ‘기록이 쌓여 잔재가 된다’가 열린다.

동구 제봉로 예술공간 집에서는 나무와 흙 등 재료로 빚어낸 공예작품을 전시한 ‘온전한 밀도’가 열린다. 고보경, 김설아, 김전욱, 백아란, 신민석, 이지현 작가가 참여하며 새롭게 리뉴얼된 예술공간집 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아트컨설팅 회사 ‘플랫폼와사비아’는 이색 전시를 선보인다. 탐자에 정정하 작가가 작품을 랩핑해 광주를 순회하며 전시하는 ‘아트 트럭 광주순회’를 진행한다. ‘디어마이광주’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전시를 진행한다.

남구 제중로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은 개관 10주년 기념전시 ‘Under the Surface (내막)’을 진행한다. 한희원, 이이남, 나희덕, 신도원, 윤세영, 양나희, 이조흠, 설박, 구남폴렉티브, 양익준 등 50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한다. 디어마이워크 주간인 16일 오후2시 △재즈밴드 더블루아이즈 △국악그룹 꽃가람의 특별 공연이 선보인다.

동구 구성로 ‘예술이백그라운드’에서는 수드로잉회 회원 34명이 참여한 ‘몸짓이도(다)’가 열린다.

디어마이광주 X 맥시아트유니온
 <창작공간오픈스튜디오>
 | 전시일정 | 2023. 12. 14.(목) ~ 12. 17.(일) 10:00 ~ 18:00
 | 참여작가 | BlackSyrupBoi, gold1, Moolso, 박다운

디어마이광주 X 민아트갤러리
 <늘 그 자리에서>展
 | 전시일정 | 2023. 12. 11.(화) ~ 12. 17.(일) 10:00 ~ 18:00
 | 참여작가 | 최소애, 이태희, 이다예, 송영학, 박완희, 박환숙, 박현주, 박정민, 문부영, 김범, 김민, 김다진, 김다연, qy작가

디어마이광주 X 아크갤러리
 류초원 개인展 <기록이 쌓여 잔재가 된다>
 | 전시일정 | 2023. 12. 12.(화) ~ 12. 18.(일) 10:00 ~ 18:00
 | 참여작가 | 류초원

디어마이광주 X 예술공간집
 <온전한 밀도>展
 | 전시일정 | 2023. 12. 7.(목) ~ 12. 22.(금) 10:00 ~ 18:00
 | 참여작가 | 고보경, 김설아, 김전욱, 백아란, 신민석, 이지현

디어마이광주 X 플랫폼와사비아
 아트트럭 광주순회展
 | 전시일정 | 2023. 12. 14.(목) ~ 12. 17.(일)
 | 전시내용 | 탐자에 정정하 작가 작품 랩핑하여 무빙트럭 광주 순회 전시

디어마이워크 홍보물.

동구 동계로 ‘갤러리 다운’에서는 백자 달항아리와 산수(山水)를 소재로 선보이는 조문현 작가를 초청해 ‘달항아리가 있는 풍경’ 전시를 선보인다. 은은하고 담백한 매력을 풍기는 백자 달항아리와 사시 사철 변화하는 자연,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겨울 감수성에 젖어든다.

남구 사직공원 입구 ‘갤러리’는 삶의

디어마이광주 X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10주년 기념展 <UNDER THE SURFACE>
 | 전시일정 | 2023. 12. 15.(금) ~ 2024. 1. 15.(일) 10:00 ~ 18:00
 | 참여작가 | 한희원, 이이남, 나희덕, 신도원, 윤세영, 양나희, 이조흠, 설박, 구남폴렉티브, 양익준 외 50인

디어마이광주 X 예술이백그라운드
 <몸짓이도> 수드로잉회 단체展
 | 전시일정 | 2023. 12. 13.(수) ~ 12. 20.(수) 10:00 ~ 18:00
 | 참여작가 | 수드로잉회 회원

디어마이광주 X 다운갤러리
 <달항아리가 있는 풍경> 조문현展
 | 전시일정 | 2023. 12. 1.(화) ~ 12. 31.(일) 10:00 ~ 18:00
 | 참여작가 | 조문현

디어마이광주 X 갤러리S
 <조각의 꿈>展
 | 전시일정 | 2023. 12. 13.(수) ~ 12. 20.(수) 10:00 ~ 18:00
 | 참여작가 | 신우, 위태현

디어마이광주 X 복합문화공간 김넷과
 <소장>展
 | 전시일정 | 2023. 12. 7.(목) ~ 12. 22.(금) 10:00 ~ 18:00
 | 전시내용 | 김넷과 소장품

(물소) △박다운 등 4명의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동구 구성로 지역 복합문화공간 김넷과는 소장전시를 연다.

10개 갤러리에서는 지역 청년작가 정승원이 그린 크리스마스 트리 이미지를 활용해 체험 클래스도 진행한다. 관람객들은 해당 이미지를 자유롭게 색칠하고 액자에 담아갈 수 있다.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디어마이워크 기간 동안 10개 갤러리 공간을 방문해 전시, 공연을 관람하거나 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디어마이광주’ 커뮤니티에 업로드하고 갤러리 직원에게 인증하면 현장에서 선물을 증정한다. 15일부터 문화예술공간을 방문하거나 행사참여 인증사진도 커뮤니티에 올리면 김치냉장고 등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1월초까지 실시된다.

한편 ‘디어마이광주’는 예술가와 소통하며 문화예술정보를 공유하고 예술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국 지자체 최초 문화예술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지난해 2월 오픈했다.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애플스토어)에서 ‘디어마이광주’를 검색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국내 최초 이슬람 문화 ‘살람, 히잡’ 전시

내년3월17일까지 靑문화박물관

이슬람 ‘히잡’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특별 전시가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아시아 문화박물관 특별전시 ‘살람, 히잡’을 내년 3월17일까지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인다.

‘살람, 히잡’은 히잡에 주목한 우리나라 최초 전시다. 전시에서는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의 복식문화 중 상징적인 의복인 ‘히잡’에 대해 소개한다. 살람은 아랍어로 평화를 뜻하는 단어다. 이슬람교는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로 전 세계 57개국 18억 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기 위해 기획했다.

‘살람, 히잡’에서는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한 눈에 무슬림임을 드러내며 그 자체로 경계와 배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히잡에 대해 알아본다.

에멘출신 사진작가 부슈라 알무타와겔의 ‘엄마, 딸, 인형’이라는 작품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개된다. 작가는 9점 사진 연작 작품을 통해 히잡이나 히잡을 쓰는 여성의 문제가 아닌 히잡으로 여성을 억압하고 존재를 지워나가는 것에 대해 비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특별전시 ‘살람, 히잡’의 주요작. ACC 제공

판한다. 전시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 중 하나인 이란 이스피한의 세이크로트폴라 모스크를 배경으로 히잡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볼 수 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광주문화발전소 ‘문화통 겨울호’ 발간

광주문화발전소가 발행하는 문화통 plus겨울호(통권 49호)가 발간됐다.

이번 겨울호는 지형원 발행인 에디터레터 ‘사라진 조각, 쓸쓸한 금남로’를 시작으로 전라도문화수수께끼 ‘장흥 삼산리 3 그루 후박나무가 한그루처럼 살아가는 비밀’을 현장취재를 통해 풀어냈다.

새로운 발굴기사로 460여년 전 ‘송강정철이 환벽당 김윤제에 보낸 편지글’을 실었다. 장기 시리즈 ‘전남의 마을 1박2일’에서는 두문삼절(杜門三節)의 거두

임선미 선생의 후예인 순창 임씨 집성촌 순창군 인계면 호계리와 화순 동면의 경치리를 찾아 남은 문화유적과 사람들을 살펴봤다. 부적응 학생 707명을 보듬어 회복시킨 광주 전남중 박주정 교장 인터뷰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 조기에 얽힌 이야기가 담겼다.

연재칼럼 조용현 박사의 ‘월남의 차맛돌’, 노영대 변호사의 ‘노변한담’, ‘그 섬에 가고 싶다’, ‘우이도(牛耳島)’ 등 읽을거리도 풍성하다.

최동한 기자

광주시립발레단 정기공연 ‘호두까기 인형’

21일부터 4회 선보여

광주시립발레단은 제136회 정기공연 ‘호두까기 인형’을 오는 21일부터 총 4회에 걸쳐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공연은 21일 오후 7시 30분, 22일 오후 3시·7시 30분, 23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다.

‘호두까기 인형’은 독일 낭만주의 대표 작가인 E. T. A.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왕’을 바탕으로 제작된 발레 작품이다. 차이콥스키의 환상적인 음악이 어우러진 크리스마스 대표 발레 공연으로 꼽힌다.

크리스마스에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로 받은 소녀 클라라가 꿈속에서 호두까기 왕자와 함께 생쥐 왕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왕자로 변신한 호두까기 왕자와 함께 눈의 나라와 과자의 나라를 여행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광주시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화려한 무대와 다양한 캐릭터 춤 등 모든 연령층의 관객을 위해 마련된 수준 높은 춤의 향연으로 풍성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특히 작품 사이사이 톡톡 튀는 커피, 초콜릿, 중국, 러시아, 프랑스를 대표하는 캐릭터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올해 선보이는 이원국 안무의 ‘호두까기 인형’ 버전은 더욱 새로워진 캐릭터가 흥미를 더한다.



광주시립발레단이 정기공연 ‘호두까기 인형’을 오는 21일부터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특히 크리스마스 파티 장면 중 1막의 인형들의 춤 장면이 기존의 ‘무어’ 인형 대신 태권도를 발레에 접목하여 호쾌한 장면을 연출하고 생쥐 왕과 병사들의 치열한 전투, 환상적인 눈의 나라가 겨울의 정취를 한껏 살린다.

2막은 마더 진저(Mother Ginger)와 ‘봉봉’을 솔리스트와 남성들의 넘치는 힘

을 과시하는 독창적 무대로 채운다. 또한 유명한 꽃의 왈츠, 주역들의 고도 기량을 감상할 수 있는 화려한 앙상블이 펼쳐진다.

무대는 김덕기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 협연, 환상적 연주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총연출을 맡은 박경숙 예술감독은 “다양한 캐릭터의 춤과 각기 색다른 매력을 가진 주역들이 펼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동화 ‘호두까기 인형’이 관객 여러분께 성탄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티켓 가격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만원이다. 6세 이상(2017년 이전 출생자) 관람할 수 있으며,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